

‘거리 응원’ 대신 ‘거리두기 응원’ ‘집관족’ 크게 늘며 배달은 특수

광주시 동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9)씨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TV용 사운드를 새로 구입했다. 4년 전만해도 올림픽 때 친구들과 술집 등에서 TV를 함께보며 야외 응원전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임이 없는 만큼 집에서 보다 실감나게 즐겨야겠다고 생각해서다.

김씨는 “예전처럼 올림픽을 즐기긴 어렵지만 최근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놓고 편안하게 올림픽을 즐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광주지역 올림픽 관람 풍경도 바뀌었다. 식당·호프집, 대형 광장 등에서 흔히 이뤄졌던 단체 거리 응원전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대신, 집에서 가족과 경기를 지켜보는 ‘거리두기 응원’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때마다 응원을 위해 찾는 단체 손님들로 복직이던 음식점·호프집 등은 “코로나로 올림픽 특수조차 날라갔다”며 울상이다.

반면, 집에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이른바 ‘집관족’으로 일부 배달업체와 가전업체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리’ 응원전→‘거리두기’ 응원전으로=26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24·25일과 오는 30일, 학교 체육관에서 모교 출신인 여자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의 단체 응원전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안산 선수의 가족, 교직원, 학생 등 99명이 참석해 단체 응원을 벌이려다가 코로나 확산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응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광주여대 뿐 아니라 올림픽 대표로 출전한 선수를 보유한 지역 공공기관 등도 예

코로나가 바꾼 올림픽 풍경

특수 기대했던 식당·호프집 울상 3단계 격상에 손님 발길 뚝 끊겨 배달 매출은 전달보다 47% 급증 양궁 안산 잇단 금 낭보에 ‘위안’

외는 아니다.

팬싱 선수로 올림픽에 나선 강영미(광주 서구청)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매 개인전 금메달 리스트로, 메달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예전 같으면 경기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 응원 등을 검토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생각조차 않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속 유도 여자 국가대표로 메달을 노리는 김성연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한 경기로, 예년 올림픽 분위기라면 시청 문화광장, 전남대 후문, 상무지구 등에서 대규모 응원전도 검토됐을 것으로 체육계는 내다봤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모습 대신, 집에서 TV로 응원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직장인 이모(31)씨도 “지난 25일 우리지역 출신인 여자양궁 선수인 안산선수가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퇴근 후 재방송으로 다시 봤다”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안 선수의 개인전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특수도 날려”=한때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등 분위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이 추세라면 올림픽 특수를 기대해도 되겠다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대형 식당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27일부터 3단계로 격상되면서 밤 10시 이후 영업을 불가능하자 “정말 죽을 맛”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문행우 전남대후문 상인회장은 “전남대 상권의 중·대형매장 공실률이 20%를 넘어섰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이젠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빚 프로젝트까지 준비했다는 수완지구 호프집 주인은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찾은 손님이 전혀 없다”면서 “집합금지로 영업을 이어나가기도 막막한데 방역수칙도 3단계로 격상,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면 아예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코로나 특세, 배달 특수=자택에서 경기를 시청하는 시민들로 배달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40여개 이마트24 점포의 경우 이달 1일-23일 배달 매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예년보다 올림픽 분위기가 덜하긴 해도 저녁시간에 매출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재료를 넉넉하게 준비하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기간 집 등으로 친구·지인 등이 모여 술자리를 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다 자칫 방역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차 대유행을 주도하는 델타 바이러스의 경우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광주지역 올림픽 관람 풍경도 바뀌었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여자 양궁선수인 기보배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청 야외광장에서는 응원전이 열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도쿄 올림픽 여자 양궁 경기 응원전은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안산 선수 가족들만 모인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가벼운 접촉에도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해져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친구와 지인들이 모여 올

림픽 응원하면서 밥이나 술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델타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화재 가치 몰라... 헛심 쓴 사찰 절도범

삼국시대 금동불상 내던지고 가치 작은 복장 유물 훔쳤다 붙잡혀

절에 금품을 훔치려 절에 침입한 절도범이 먼지가 묻은 솜뭉치에 쌓여있던 문화재 가치를 몰라 던져놓고 나머지 금품만 챙겨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문화재 절도범 A(48)씨는 지난 10일 새벽 5시경 장흥군 B사찰 대웅전에 침입, 불상 안에 있던 ‘복장유물’을 챙겨 달아났다. 복장(腹藏)유물이란 불상 안에 넣어 잘 밀봉한 사리·불경·금탑·귀금속 등을 말한다.

사찰측은 대웅전 절도 사실을 확인한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대웅전 CCTV는 며칠 전 폭우가 내릴 당시 낙뢰를 대비, 전기를 차단하면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절 주지스님은 경찰에 “절에 보관중인 문화재도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이 사찰에는 전남도 문화재 270호 금동여래입상(높이 10cm·7-8세기 제작 추정)이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동종 범죄 전력에 일대 CCTV 등을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지난 15일 A씨를 대구에서 붙잡은 뒤 금동여래입상의 행방을 추궁했다. A씨는 “복장 유물을 가지고 나온 건 맞지만 금동상 같은 건 보지도 못했다”며 항변했다.

A씨는 훔치지 않은 것까지 덮어줄 것 같은 생각에 당시 상황을 떠올리다 불상을 열어 복장유물을 뒤지던 중 솜뭉치가 나오길래 옆으로 버렸던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다시 사찰을 찾아 대웅전을 뒤지다 한쪽 어두컴컴한 곳에서 솜 뭉치에 속에 감춰진 금동여래입상을 발견해 사찰측에 인도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삼국시대때 만들어진 불상은 내던지고 그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유물만 훔쳐가 순천 금은방에 팔려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사찰 외에 해남의 한 암자에서도 금품을 훔친 혐의를 확인,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피해 호소 여중생도 폭행 혐의 적용?

경찰 “정당방위 넘어섰다” 쌍방 폭력으로 입건... 피해학생측 반발

자신들 몰래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 사건 <광주일보 7월 22일 6면> 과 관련,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여학생에게도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측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학생측은 선배 남·여 학생들 8명에게 둘러싸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행위를 쌍방 폭력으로 보고 가해자로 판단, 입건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다른 가해학생들에 의해 퍼날라진 해당 동영상 속 폭행 행위를 놓고 보면 정당 방위를 넘어섰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A(16)양 등 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중생 B(15)양 고소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양 등 5명 뿐 아니라 피해 신고를 한 B양도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양에게

는 폭행 혐의를,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공동폭행과 방조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가해학생 8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를 따져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은 확인한 결과, B양의 저항 정도가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양 측은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쌍방 폭행 가해자로 판단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B양 측은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다른 가해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학교폭력 피해자를 쌍방 폭행범으로 몰 수 있느냐”고 말했다. 8명의 남·여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며 때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휘두른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폭행 여부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정차 단속 자료 무단 삭제 서구청 공직자 17명 입건

경찰이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 서구청 공직자 17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5명과 공무원 직원 12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구는 공무원 5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의원 과 동료,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 넘도록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4160건을 면제한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